

韓國 現代小說에 나타난 基督教思想

丘 昌 煥

目 次
I. 序 論
II. 韓國小說과 基督教
1. 開化期小說의 基督教思想
2. 近代小說의 基督教思想
III. 結 論

I. 序 論

文學이란 人生을 表現하는 言語藝術이므로,¹⁾ 文作品에 나타난 思想性的 考察은 그 藝術性的 究明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이다. 文學은 구체적인 言語 構造를 통한 形象化라는 점에서 藝術이지만 人間을 探究하고 自然과 歷史와 社會를 보는 眼(觀點)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思想이기 때문이다.²⁾ 그러므로 文學作品은 作家에 의하여 創造되어지고 形象化되어진 그 思想의 깊이와 폭에 의하여서 價値評價되어지며, 한 作品 속에 具現되어진 人生의 意味와 삶의 모랄과 人間問題에 대한 解釋이나 새로운 價値의 提示는 讀者에게 情緒的 感動을 주고 精神과 靈魂의 눈을 뜨게 한다.

文學作品에 나타난 思想性を 考察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큰 作業이다. 文學에서 말하는 思想性이란 人間과 自然과 社會와 歷史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意味探究요 再解釋을 뜻 하는 만큼, 여러가지 人間觀을 비롯하여 社會思想과 政治的 이데올로기, 民族意識이나 歷史意識, 自然과 文明을 보는 觀點, 그리고 倫理的 思想이나 宗教意識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韓區文學의 思想性を 體系化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가지 思想들이 文學作品 속에 어떻게 投影되어 있는지 個別的인 考察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文學과 宗教 내지 倫理와의 接觸關係를 살피고 文學作品에 나타난 宗教意識을 研究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文學에서 그러는 人間은 본래 倫理的 存在요 宗教意識을 지닌 存在이기 때문이다.

요즈음 韓國文學에 나타난 宗教思想의 研究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매우 다행한 일

1) W.H.Hudson,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Literature (Harrap) p.11.

2) cf. 拙稿 “韓國文學의 思想性 研究” 「韓國言語文學」 第12輯 pp.35~37.

<韓國 現代小說에 나타난 基督教思想>

이다. 韓國文學에 投影된 佛教思想의 考察은 이미 여러 學者에 의하여 多角的으로 이루어졌고, 民俗信仰인 샤머니즘에 대한 考察이라든지 現實生活의 規範을 내세운 儒教思想의 研究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近代文化 發展에 크게 이바지한 基督教思想이 어떻게 韓國文學에 投影되었는지를 살피고 基督教 精神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文學이 韓國文學에 또하나의 傳統으로 發展할 수 있는지를 考察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더욱이 傳統이란 과거의 精神文化를 단순히 繼承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새롭게 再評價하여 形成 發展시키는 것인 만큼, 基督教思想과 精神을 바탕으로 하는 文學의 創造는 우리 文學을 深化시키고 그 領域을 擴大해 줄 것이므로, 이의 啓發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物質萬能으로 인해 社會의 不條理가 橫行하고 機械技術文明의 成長과 産業化 社會의 急變에 따라 非人間化 현상이 過增되며, 人間의 價値와 尊嚴性이 喪失되는 現代社會를 救濟할 길이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할 때, 宗教意識의 回復은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基督教은 사랑과 正義를 實現하여 바람직한 共同体 社會를 이루기 가려는 人道主義的인 宗教로서, 物質文明의 그릇된 膨창과 道德的인 타락으로 病들어 가고 있는 現代人間과 社會를 救濟할 수 있는 可能性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文學에도 이러한 基督教 精神이 具現되고 基督教思想이 바탕을 이루는 새로운 文學創造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흔히 文學이란 時代的인 所產物로서 그 社會를 반영한다고 한다.³⁾ 基督教이 人間生活의 바탕을 이루어 온 西歐의 경우와는 물론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基督教이 傳來된지 수백년을 헤아리고 오늘날 信徒數도 全國民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基督教 文化의 成長은 기대할만한 일이다. 먼저 가톨릭은 天主教의 이름으로 壬亂 무렵부터 산발적인 宣敎活動이 있다가 1784년에는 李薩 李承燾 權日新 兄弟와 丁若銓 3兄弟등이 明洞 金龜禹의 집에 모여 정식으로 朝鮮敎會를 창설하는데,⁴⁾ 그 뒤 100餘년에 걸친 迫害 속에서도 수 많은 殉敎者를 내면서 成長하기에 이른다. 한편 프로테스탄트(改新敎)는 1882년에 일부 聖書가 번역되어 文書宣敎가 시작되었고, 1884년에는 醫療宣敎師 Allen이, 1885년에는 長老敎의 Underwood와 監理敎의 Appenzeller 등이 들어와서 본격적인 宣敎活動을 전개함으로써⁵⁾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宣敎國家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改新敎는 처음부터 敎育宣敎나 醫療宣敎등에 힘써 이 나라의 開化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民族運動에 뜻을 둔 人士들이 많이 敎會를 찾아 民族啓蒙에 힘쓰기도 하였다.⁶⁾ 그러나 外來宗教인 基督教이 韓國社會에 土着化되고 韓國文化 속에 受容되기 위해서는 民俗信仰인 샤머니즘의 방해라든지 生活規範인 儒教思想과의 軋찰을 克服하기 않으면

3) 社會는 文學의 根源 중에서 가장 큰 위키에 있다. 그러나 文學은 作家의 想像力에 의한 再構成 즉 創造의 藝術이 되어야 한다.

4) 柳洪烈, 「韓國天主教會史」上(가톨릭출판사) pp. 87~89.

5) 閔庚培, 「韓國基督教會史」(大韓基督教書會) p. 130, 144.

6) cf. 李萬烈, 「한말 기독교와 민족운동」(명민사) pp. 61~132.

안되는 어려움에 부딪힌다.

그동안 韓國文學과 基督教와의 接觸은 매우 희귀한 편이었고, 그것도 內容에 있어서 여려가 지로 미약한 편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基督教文學은 점점 그 量도 많아지고 그 質도 深化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예컨대 李蕪의 「聖教要旨」 「天主恭敬歌」 李家煥의 「警世家」 丁若銓의 「十誠命歌」 등 이미 18世紀에 天主歌辭가 지어졌고,⁷⁾ 開化期에는 聖經의 번역 普及과 讚頌歌의 번역을 위시하여 抗日 民族的인 開化期歌辭를 낳고 安國善의 「禽獸會議錄」과 같은 新小說이 지어졌다. 그리고 近代文學에 이르면 李光洙 田榮澤 沈熏 朴啓周 朴榮濬 金東里 黃順元 등의 小說과 鄭芝溶 尹東柱 柳致環 朴木月 朴斗鎭 金顯承 등의 詩에서 基督教와의 접촉을 보게 되고, 解放後 現代文學에 오면 많은 基督教文學인들이 創作活動에 專念하고 있어 그 發展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데, 文學이 어떻게 宗教思想을 受容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편협한 생각을 가지기 쉽다는 점을 먼저 理解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文學이라는 形式을 통하여 既存教理를 宣揚하고 옹호하는 것으로 알기 쉽다는 점이다. 그러나 文學과 宗教와의 接觸關係는 그렇게 협소하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예컨대 基督教文學은 基督教精神이 具現되는 文學을 뜻하므로, 文學이 基督教을 受容함에 있어서는 肯定的인 方法도 있을 수 있고 批判的인 方法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既存宗教를 찬양하고 옹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이를 批判하고 그 僞善的인 면을 폭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바람직한 것은 作品 속에 基督教精神이나 思想이 內包되어지고 숨겨지는 成肉化의 方法, 즉 間接的인 表現의 경우라 하겠다.

T. S. Eliot는 일찌기 「宗教와 文學」에서 宗教文學을 三分하여 첫째는 聖書文學이고 둘째는 宗教詩, 信仰詩이며 셋째는 間接的인 宗教文學이라고 말하면서, 바람직한 宗教文學은 “計劃的인 것 보다 무의식적으로 基督教的인 文學”이라는 것이다.⁸⁾ 즉 基督教를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은연중에 基督教精神이 內包되고 基督教思想이 具現된 文學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基督教文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宗教文學을 편협하게 생각하여 宗教的 教理의 宣揚 옹호라든지 信仰의 告白 또는 干證의 表現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宗教文學의 概念을 확대하면, 既存宗教의 逆機能과 非理를 批判하는 경우도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宗教文學은 間接的인 方法으로 宗教精神을 作品 속에 溶解시켜 表現하는 含蓄的인 宗教文學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宗教文學은 먼저 文學으로서 成功해야 하지, 지나치게 宗教意識을 前面에 내세우고 이를 說教하

7) 河鏞來, “天主歌辭研究”(上) 「韓國言語文學」 8. 9輯合併號, pp. 297~312.

8) T. S. Eliot, “Religion and Literature” Selected Prose(Penguin) pp. 32~44.

<韓國 現代小說에 나타난 基督教思想>

는 나머지 文學이 죽는 경우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른바 “根源의 誤謬”⁹⁾에 빠져서 宗教文學이 아닌 宗教文書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文學을 想像力에 의한 言語藝術로서 주장하고 있는 Cleanth Brooks는 「숨은 神」(The Hidden God)에서 道德的 窮境에 처한 人間의 모습을 그린 E. Hemingway와 原罪意識과 善惡의 갈등을 그린 W. Faulkner와 새로운 神話를 탐색한 W. B. Yeats, T. S. Eliot, R. P. Warren 등의 文學을 論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유능한 作家 중에는 확실하고 분명한 基督教人이 많다. 그러나 基督教 讀者에게 가장 의의있는 現代文學의 一部는 어떤 教會의 信徒도 아닌 作家들과 스스로를 솔직하게 不可知論者 또는 無神論者로 지칭하는 作家들에 의하여 쓰여졌다는 사실이다. 만약에 진지한 文學으로 부터 분명한 기독교의 說教를 우리가 요구한다면, 우리 時代의 가장 滋養있는 文學의 일부를 제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¹⁰⁾

이는 文學과 宗教의 關聯을 考察함에 있어서 護教論的인 文學으로 오해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Randall Stewart도 「美國文學과 基督教 教理」에서 N. Hawthorne, H. Melville, H. James, T. S. Eliot, E. Hemingway, R. P. Warren, W. Faulkner 등의 文學을 통하여 道德的 갈등과 苦惱라든지 惡魔的 人間의 反抗과 挫折, 絶望과 希望의 문제, 宗教의 象徴과 儀式, 人間의 原罪와 墮落등을 파헤쳐 基督教文學의 幅을 넓히고 있다. 특히 Faulkner의 경우에는 一見 非道德的이고 反宗教的인 素材를 많이 作品化하고 있지만, 原罪意識이라든지 靈肉의 갈등, 苦惱와 試練과 犧牲을 통한 救拔, 勇氣와 같은 精神의 偉大함을 그려서 現代의 가장 심원한 基督教 作家의 하나가 되었다고 說破하였다.¹¹⁾

한편 Stanley Hopper가 편찬한 「現代文學의 精神問題」에는 文學과 宗教와의 關係를 여러가지로 깊이 있게 考察하고 있으며, Kafka나 Thomas Mann, T. S. Eliot, W. H. Auden 등을 통하여 苦惱속에서 救援을 追求하고, 倫理的 維立과 疎外 속에서도 信念을 잃지 않으며, 人間價値를 옹호하는 基督教의 휴머니즘을 指向하는 現代文學의 宗教的 特性을 잘 밝히고 있다.¹²⁾

그러므로 바람직한 基督教文學은 基督教精神을 具現하고 基督教思想을 바탕으로 하는 藝術的인 文學이어야 하되, 이는 肯定的인 方法이나 否定的인 方法 또는 批判的인 方法으로 表現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具體的으로 基督教文學은 神과 人間과의 關係라든지 原罪意識과 苦惱와 良心의 문제, 靈魂과 肉體의 갈등, 善惡의 싸움, 人間의 墮落과 救援에 대한 希求, 삶의

9) R. Wellek & A. Warren, Theory of Literature (Penguin) p. 73.

10) C. Brooks, The Hidden God (Yale) p. 4.

11) Randall Stewart, American Literature & Christian Doctrine 刈田元司譯(北星堂書店) p. 182.

12) Stanley Hopper, Spiritual Problems in Contemporary Literature 金榮秀譯(韓國基督教文學研究所).

姿勢와 모랄에 대한 제시, 이웃에 대한 사랑과 奉仕와 和解, 正義의 실현과 人間價値의 옹호등을 主題化한다. 그밖에도 神에 대한 찬양과 宗教的 喜悅, 信仰의 告白과 信徒의 교제등이 包含된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基督教精神의 具現을 추구하는 基督教文學은 人間價値를 옹호하는 휴머니즘文學이 되어야 하고, 喪失되고 疎外된 人間의 尊嚴性을 回復하는 人間化的 文學이어야 하며, 바람직한 삶의 姿勢를 제시하는 모랄의 文學이고, 社會的 不條理와 物質萬能의 병폐와 機械技術의 挑戰에 대응하는 抵抗文學이며, 人間存在의 새로운 意味를 探求하는 內面探究의 文學이고, 讀者들을 精神的으로 일깨워주는 啓蒙文學, 開眼의 文學이 되어야겠다. 그렇다면 基督教文學은 存在의 文學이 아니라 當爲의 文學이며, 慰安의 文學이 아니라 救濟의 文學이고, 快樂의 文學이 아니라 教訓의 文學이요, 消費의 文學이 아니라 創造의 文學이며, 遊閑의 文學이 아니라 苦惱의 文學이라고 하겠다.

이제 本論에서는 開化期 이래 韓國의 近代小說에 基督教思想이 어떻게 受容되었는지 考察하고, 이를 反省코자 한다.

II. 韓國小說과 基督教

1. 開化期小說의 基督教思想

韓國의 開化期는 1876年 開港과 더불어 시작되지만, 1884年 甲申政變과 1894年 甲午更張, 1896年 독립신문의 發刊등으로 절정에 이르고, 1910年代 初까지 계속되어졌다. 開化思想은 곧 封建主義를 打破하고 西洋의 近代文化를 받아들여려는 啓蒙思潮였기 때문에, 基督教은 韓國의 開化에 많은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에 改新教가 들어온 것은 마침 開化時代였으며 그들은 처음부터 教育宣敎와 醫療宣敎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韓國의 近代化 運動에 同參하였다. 長老敎의 醫療宣敎師 Allen은 1884년에 入國하여 다음해엔 廣惠院 (뒤에 濟衆院)을 設立함으로써 近代的 醫療施設의 嚆矢를 일으켰고, 監理敎 宣敎師 Appenzeller는 培材學堂을 (1885), Scranton夫人은 梨花學堂 (1886)을 設立하여 이 나라의 近代教育을 出發시켰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일은 文書宣敎가 이 나라의 開化에 큰 공을 세웠다는 사실이다. 聖書의 한글 번역과 讚頌歌의 번역 편찬이 그것인데, 이들은 韓國文學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먼저 최초의 聖書 번역은 1882年 奉天에서 John Ross 敎師 一行에 의하여 「누가 복음」이 刊行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Ross는 Mac Intyre와 함께 助手인 李應齎 金鎮基 白鴻俊의 도움을 받아 한글본 「누가 복음」을 唐紙 56枚로 譯刊하였고, 매년 福音書들을 번역 출간하다가 1887년에는 드디어 新約 全부를 모은 「예수 성교전서」를 盛京(奉天) 文光書院 活版으로

<韓國 現代小說에 나타난 基督教思想>

刊行함으로써 이 나라 최초의 聖書 Ross version을 남기게 되었다.¹³⁾ 한편 日本에 가있던 李樹旼이 「신약마가전 복음서전역」을 1885年 橫濱에서 刊行하였고, 이어서 聖書翻譯者會에서 1900년에 「신약전서」를 發刊하여 聖書 보급에 힘쓴다. 聖書翻譯史를 연구한 金秉喆 교수는 “이것(한글 聖書)에 의하여 韓國에 새로운 스타일을 가진 文体와 基督教文學이 생겼고, 思想界에 肥沃한 培養土를 뿌려 주었으며, 開化期 이후의 新文學은 精神的으로도 가장 훌륭한 言文一致라는 模範을 거기서 발견했던 것이다.”¹⁴⁾ 고 말하고 있다.

이제 開化期의 小說文學과 基督教와의 關係를 살펴 보려고 한다. 먼저 基督教信仰을 가졌던 兪吉濬은 최초의 國漢文混用体인 「西遊見聞」(1895)을 發刊하여 이땅에 西洋의 文物을 소개하였고¹⁵⁾ 宣教師 James Gale은 John Bunyan의 宗教小說 The Pilgrim's Progress를, 번역한 「련로 령명」을 1895년에 刊行하여 西洋文學을 알게 했다. 그러나 근래에 活潑해진 開化期 小說에 대한 書誌的 研究를 참고해 보면, 白岳春史의 「多情多恨」(1907)이나 「月下의 自白」(1907)이라는 雜誌小說과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1905) 같은 新聞小說 및 安國善의 「禽獸會識錄」(1908) 李海朝의 「自由鍾」(1910) 등의 新小說에서 基督教의인 聯關을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多情多恨」은 1907年 「太極學報」 6,7號에 발표된 白岳春史의 小說인데 國漢文 混用体로 되어 있다. 宋敏鎬 교수의 研究에 의하면, 이 小說은 三醒先生이란 唐貧하고 人道的인 警察官이 免職 下獄되어 있는 중에 「天路歷程」 등을 읽고 耶穌教에 심취되었으며 放免 후에는 傳道와 社會事業에 힘쓴다는 이야기로서, 基督教精神이 잘 나타나 있다. 宋교수는 이 作品에 대하여 이렇게 論評하고 있다.

腐敗官僚들의 橫暴가 極에 달하고 人間의 自由가 抹殺된 光武年間에 한 志士의 抗拒가 容納되지 못하고 罪없는 罪人이 되었다. 이러한 不條理한 社會를 救濟하는 길은 하느님을 믿는 基督教精神 밖에 없다는 것이 이 作品의 主題다. 西教에 대한 讚揚은 이 時代의 作品에 많이 反映되고 있으나, 이 「多情多恨」처럼 직접 다룬 것은 드물다. 따라서, 이 작품은 西教에 의한 近代化過程을 作品化한 시초라고 할 수 있다.¹⁶⁾

「太極學報」 13號 (1907.9)에 발표한 白岳春史의 다음 作品 「月下의 自白」도 國漢文混用体的 短篇으로서, 이는 民擾를 당한 貪官汚吏가 죽음에 임하여 자기의 罪를 悔改하는 基督教의 思考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大韓每日新聞에 실린 無署名 新小說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1905.11)과 「車夫誤解」(1906.2)는 問答式 對話形式을 통하여 社會의 不條理를 批判한 政治小說로서 社會改革에 대한

13) Ross版 聖書는 1956年 서울 鍾路에 再建된 聖書會館 落成을 기념하여 복채 출판됨.

14) 金秉喆, “聖書翻譯史”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乙酉文化社) p. 67.

15) 兪吉濬이 信仰人이었던 것은 1906年 查經會趣旨書에 잘 나타나있다. (cf. 閔庚培 op. cit. p.58).

16) 宋敏鎬, 「韓國開化期小說의 史的研究」(一志社) p.138.

主題는 강하나 藝術的인 小說로서의 기틀은 잡히지 않고 있다. 다만 皮相的인 開化를 좇는 나머지 많은 不條理를 謔行하는 當代의 風習을 不具者나 人力車군을 통하여 諷刺하고 批判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¹⁷⁾

본격적인 新小說 중에서도 李海朝의 「自由鍾」이나 安國善의 「禽獸會議錄」도 같은 유형에 든다고 하겠다. 다만 「自由鍾」(1910)은 討論小說로서 女性들을 통하여 開化期의 政治·社會問題를 多樣하게 批判하도록 하였고, 「禽獸會議錄」(1908)은 寓話小說로서 여러 動物들을 통하여 人間의 不條理를 諷刺批判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로며, 또 앞의 몇몇 作品이 겨우 形成期의 新聞小說이었음에 비하여 이들은 본격적인 社會小說이요 政治小說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먼저 「自由鍾」은 1910年 7月 廣學書齋에서 刊行된 討論小說인데, 開化期답잖라 할 수 있는 啓蒙文學이다. 한 女人의 生日잔치에 모인 여러 女性들이 女性敎育의 문제를 비롯하여 한글 사용에 대한 論議, 宗教와 敎育에 대한 검토, 子女敎育 문제, 身分制度의 論議와 自由獨立思想의 주장 등 開化期의 社會問題를 광범하게 討論하고 있다. 따라서 스토리가 따로 없고 이른바 演說式小說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論議는 대체적으로 온건하고 신중을 기하고 있어 開化期의 전개 과정을 보여 준다. 그 중에서도 宗教에 관한 論議를 보면, 우선 人生에 있어서 宗教가 필요함을 말한 뒤에 우리의 대표적 宗教로서 孔子의 가르침을 지목하고 그 부패하고 僞善的이고 虛禮虛飾에 빠진 모습을 이렇게 批判한다.

종교라는 종자는 무슨 종자며, 교자는 무슨 교자인지 착각 접어 먼지 속에 파묻고, 씨우나니 양반이요, 다투나니 재물이랴. 이것이 우리 신성하신 대종교라 하오. 한심하고 통곡할 만도 하오. 종교가 이렇게 부패하니 국세가 어찌 강성하겠소?¹⁸⁾

開化期의 小說 중에서 基督教精神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作品은 安國善의 「禽獸會議錄」이다. 이는 動物을 내세워서 人間과 社會의 惡德과 不條理를 신랄하게 諷刺하고 批判한 寓話小說로서, 여러 짐승들이 모여 人間을 논박하는 會議를 하는 形式을 취하고 있고, 「自由鍾」의 경우와 같이 小說的인 스토리가 없는 演說로 꾸며져 있다. 이 會議를 방청한 叙術者의 다음과 같은 反省은 이 作品의 內容을 잘 要約하고 있다.

슬프다! 여러 짐승의 연설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세상에 불쌍한 것이 사람이로다. 내가 어찌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욕을 보느냐! 사람은 민물 중에 귀하기도 제일이요 신령하기도 제일이요 재주도 제일이요 지혜도 제일이라 하여 동물 중에 제일 좋다 하더니, 오늘날로 보면 제일로 악하고 제일 흉괴하고 제일 음란하고 제일 간사하고 제일 더럽고 제일 어리석은 것은 사람이로다. 까마귀처럼 호도할 줄도 모르고, 개구리처럼 분수 지킬 줄도 모르고, 여우보단도 간사한, 호랑이 보담도 포악한, 벌

17) *Ibid.* p. 181. 李在銜, 「韓末의 新聞小說」(春秋文庫) pp. 86~

18) 李海朝, 「自由鍾(外)」(乙酉文庫) p. 22.

<韓國 現代小說에 나타난 基督教思想>

과 같이 정적하지도 못하고, 파리같이 동포 사랑할 줄도 모르고, 창자 없는 일은 게보다 심하고, 부정
한 행실은 원앙새가 부끄럽도다.¹⁹⁾

이와같이 「禽獸會議錄」은 철저하게 人間의 惡德과 僞善과 邪惡性을 暴露 非難 叫彈하는 作
品으로서, 新小說 中에서는 가장 諷刺的인 寓話小說이다. 그런데 짐승들이 모여서 人間을 규탄
하는 근거가 다음 開會趣旨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基督教精神 위에 서 있다는 점이다.

대저 우리들이 거주하여 사는 이 세상은 당초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견
능하신 하나님께서 조화로 만드신 것이라.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조화주를 곧 하나님이라 [하나니, 일
만 이치의 주인되시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만드시고 또 만물을 만들어 각색 물건이 세상에 생기게 하셨
으니, 이같이 만드신 목적은 그 영광을 나타내어 모든 생물로 하여금 인자한 은덕을 베풀어 [영원한 행
복을 받게 함이라……. 그 중에도 사람이라 하는 물건은 당초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특별히 영혼과
도덕심을 넣어서 다른 물건과 다르게 하였은즉,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천리, 정도를
지키고 착한 행실과 아름다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할터인데, 지금 세상 사람들의 하는
행위를 보니 그 하는 일이 모두 악하고 부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하나님
의 영광을 더럽게 하며 은혜를 배반하여 제반 악증이 많도다.²⁰⁾

즉 이 作品은 創造主 되시는 하나님의 權能을 말하고 人生의 目的이 神의 靈光을 위해서라는
基督教 理解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結末에서 悔改와 救撥을 강조하고 있어 더욱 基督教精神을
보여준다.

사람이 떨어져서 짐승의 아래가 되고, 짐승이 도리어 사람보다 상등이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예수씨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익 아직도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니, 사람들이 악한 일을 많이 하였을지라
도 회개하면 구원얻는 길이 있다 하였으니, 이 세상에 있는 여러 형제자매는 길이길이 생각하시오.

이상 開化期文學에 나타난 基督教思想을 考察하였는 바, 1882年 이후 계속된 聖書翻譯이 新
文化 創造의 바탕이 되었고, 1892年 이래 거들된 讚頌歌의 편찬은 唱歌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
였다. 그리고 일부 開化期 詩歌에는 不義에 抗拒하고 正義를 주장하는 作品들이 있어 基督教精
神과의 접촉을 볼 수 있고, 開化期의 小說 속에도 「多情多恨」이나 「禽獸會議錄」과 같은 作品은
곧장 基督教思想을 具現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 數에 있어서도 적거니와 지나치게 觀念
에 치우친 나머지 藝術作品으로서의 形象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文學作品으로서 成功했다고
는 말 할 수 없다.

2. 近代小說의 基督教思想

韓國의 近代文學은 대체적으로 浪漫主義라든지 自然主義, 世紀末思潮와 같은 이른바 基督教

19) 安國善, 「禽獸會議錄」 「愛國精神」(乙酉文庫) p. 42.

20) *Ibid.* pp. 9~10.

以後의 世俗文化를 받아들여, 이를 바탕으로 創作活動을 전개했기 때문에 基督敎의인 特色이 미약하다. 그런 중에서도 詩의 鄭芝溶, 尹東柱, 柳致環, 金顯承, 朴木月, 朴斗鎮 등이 있듯이 小說에 있어서는 李光洙 田榮澤 朴啓周 沈薰 朴榮灌 金東里 黃順元 등에서 基督敎와의 접촉을 보게 된다.

먼저 春園 李光洙는 民族主義的인 啓蒙文學의 先驅者로서 宗教的 人生觀을 作品化한 作家로 알려져 있으며²¹⁾ 특히 그는 基督敎와 佛敎思想을 바탕으로 作品을 썼음을 여러 사람이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李光洙의 基督敎 接近動機를 白鐵 교수는 첫째 時代的 背景으로 기독교가 성황하는 開化期에 등장하였다는 점과 둘째 영향을 준 人物이 李昇薰 安昌浩 등 基督敎 指導者였다는 점과 셋째로 그가 밋손系인 明治學院에서 공부하였고 특히 친구 山崎俊夫의 권유로 Tolstoy 文學에 심취하고 그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²²⁾ 대서 開化期의 基督敎 理解는 순수히 宗教的인 측면 외에 社會的인 측면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데, 李萬烈 교수의 다음 말은 春園의 경우에도 참고가 된다.

한말 기독교도들의 입신 동기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두가지로 나타난다. 사회적인 압제를 면하려는 것이 그 한 요소라면, 다른 하나는 기독교를 통한 구국 제민(救國濟民)의 방향모색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기독교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우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압제 세력과 불합리한 사회윤리에 도전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근대사회에서 가져야 할 반봉건의식을 형성해 갔던 것이다.²³⁾

李光洙의 基督敎에 대한 理解도 처음에는 宗教的 측면보다 社會的 측면에 치우쳐 있음을 長篇「無情」이라든지 몇개의 論說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의 處女長篇「無情」을 보면 男女의 愛情問題와 民族의 啓蒙을 主題로 한 作品으로서 특별히 基督敎精神을 具現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主人公 중에 基督敎人들이 등장하여 주목케 한다. 그러나 그들은 독실한 信者도 아니고 敎會의 가르침에 따라 살지도 않는다. 作家는 오히려 主人公 신행식을 통하여 敎會를 비판한다.

예수 믿은지는 오래나 워낙 교회에 뜻이 없으니까, 교회 내의 신용조차 그리 크지 못하였다. 아무 지식도 없고, 아무 덕행도 없는 아이들이 목사나 장로의 집에 자주 다니며 알른알른 히는 덕에 집사도 되고, 사찰도 되어 교회 내에서 쥔 체하는 꼴을 볼 때 마다 형식은 구역이 나게 생각하였다.²⁴⁾

뿐만 아니라 作家는 선형의 아버지 金長老가 본래 妓生蓄妾하다가 本室이 病死하자 正室로 들어 앉친 사람이고, 그가 예수를 믿은 것도 서양문명을 본받기 위해서였다고 그림으로써 非基

21)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成文閣) pp. 174~

22) 白鐵, 「春園文學과 基督敎」 「韓國文學의 理論」(正音社) pp. 114~7.

23) 李萬烈, 「한말기독교와 민족운동」(영민사) p. 133.

24) 李光洙, 「無情」 「李光洙選集」(語文閣) p. 5.

<韓國.現代小說에 나타난 基督教思想>

基督教的인 면을 들어내고 있다. 선형이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聖經을 읽고 외우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만큼 非基督教的이다. 그들은 西洋을 본받는 開化人임을 보이기 위하여 예수교인 행세를 할 뿐이다. 이에 비하여 예수교인도 아닌 日本 유학생 병욱이가 車 證에서 영채를 만나 그에게 새로운 삶을 깨닫게 하고 女權을 찾아 希望을 갖도록 하는것이나, 洛東江 범람에서 水災民 구호를 위한 자선 음악회를 여는 것등은 오히려 基督教精神의 具現인 휴머니즘에 바탕을 두고 있다.

李光洙는 「青春」 9號(1917)에 실린 「耶蘇敎의 朝鮮에 준 恩惠」라는 論說에서 “耶蘇敎會는 實로 暗黑하던 朝鮮에 新文明의 曙光을 傳하여 준 最初의 恩人이며, 廉하여 最大한 恩人이요”라고 前提한 후 기독교의 공적을 朝鮮人에게 西洋事情을 알림, 道德의 振興, 敎育의 普及, 女子地位의 높임, 早婚弊의 矯正, 한글普及, 思想의 刺戟, 個性의 自覺 또는 個人意識의 自覺이라고 지적하였다.²⁵⁾ 이는 李光洙의 基督教에 대한 理解가 信仰과 救援이라는 宗教的 측면보다 社會的 文化的 측면에 지우쳐 있음을 알게 해준다.

一言以蔽之하면, 朝鮮은 예수敎會를 通하여 歐美의 文化와 接觸한 것이다. 더구나 예수敎의 聖經, 其他 宗教書類를 純朝鮮文으로 翻譯하여 普及한 것이 朝鮮語와 文의 更生發達에 大 影響은 오직 한글의 制定에만 비금갈 功績이다. 過去에만 그러하였을 뿐 아니라 現在에도 예수敎는 우리 朝鮮의 文化에 大 貢獻을 하고 있다.²⁶⁾

위는 李光洙가 쓴 「朝鮮의 예수敎」의 한 部分이거니와, 그는 어디까지나 社會的 文化的 측면에서 基督教을 理解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基督教도 主로 民族의 啓蒙의 次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기에 李光洙는 「今日 朝鮮耶蘇敎會의 缺點」에서 신랄하게 敎會 또는 敎人들의 非文化的 現象을 批判하기에 이른다. 그는 朝鮮의 耶蘇敎會가 첫째 自由 平等에 어긋나는 階級的 이고, 둘째 敎會至上主義에 빠져서 敎俗 區別을 심히 하고 學問을 천히 여기고 世上 일을 소홀히 하며, 셋째 敎役者가 無識하고, 넷째 迷信의 闇을 지적하면서 敎會의 一大改革을 제창하고 “文明的 宗教”가 되도록 추구하였다.²⁷⁾ 李光洙의 이러한 當時의 基督教 批判은 敎會의 混迷를 보이는 現在에 있어서도 상당한 說得力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信仰을 통한 救援, 사랑과 義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形成, 神에 대한 순종과 人間價値의 옹호등 基督教의 本質에는 미흡하다고 하겠다.²⁸⁾

이와같이 李光洙의 基督教 理解는 편협한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여러 作品에는 基督的

25) 「李光洙全集」 10 (三中堂) pp. 17~19.

26) 「李光洙全集」 9 (三中堂) p. 377.

27) *Ibid.* 10 pp. 20~24.

28) cf. A. Harnack, 「基督教의 本質」(三星文化文庫)에는 예수의 中心思想은 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到來 ② 하나님과 人間精神의 無限한 價値 ③ 보다는은 義와 사랑의 誠命이라 지적하였음.

精神이 表現되기도 하고 基督教의 人間像이 그려지기도 하였으니, 「再生」이나 「有情」 「愛慾의 彼岸」 「흠」 「사랑」 등이 그것이다. 白鐵 교수는 “春園은 基督教의 교리를 作品의 思想性으로서 消化하려고 한 唯一한 作家이며, 그만큼 基督教 교리가 春園小說의 내용을 살찌게 할 大地와 같은 地반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⁹⁾는 說明을 한 바 있거니와, 李光洙는 「再生」과 「愛慾의 彼岸」에서 善惡의 갈등과 靈肉의 對決, 罪에서의 悔改를 主題化하였고, 「有情」과 「사랑」에서는 崇高한 精神的인 사랑을 그렸으며, 「흠」에서도 克己와 奉仕精神을 다루어 휴머니티를 追求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部分的으로 基督教과 關連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作品 전체의 思想이 기독교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먼저 「再生」(1924)은 순영이라는 미모의 新女性이 사랑하는 이를 저버리고 道德적으로 타락한 生活을 하다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귀우치고 自殺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그녀의 性格은 善惡과 靈肉의 갈등을 심히 겪는 二重的, 兩面的인 人間性을 具現하고 있다. 즉 그녀는 仁善學校 女學生으로서, 어떤 때는 善을 지향하나 또 어떤 때는 惡을 탐하여 스스로 罪와 타락의 길을 걷는다. 순영은 精神的인 봉구와 肉體的인 裴가 사이에서 彷徨하며, 사랑을 저버리고 돈과 음탕을 찾아 허덕이다가 자기의 罪를 깨닫게 되는데, 尹弘老 교수가 “春園은 罪의 思想을 독자에게 심었다”³⁰⁾고 지적한 것은 옳은 말이다. 그리고 순영이의 性格的인 兩面性과 倫理的 방황은 그녀가 獨立鬪士인 순홍과 여동생을 팔기까지 하는 俗物인 순기를 으파로 두고 있다는 것이라든지, 信仰에 사는 P부인이나 人순이를 한쪽에 두고 또 한편에는 世俗的인 향락에 사는 선주를 두고 있도록 한 점에서 더욱 실감있게 들어난다. 다만 순영이가 罪意識과 人間苦를 이기지 못하여 罪惡의 열매인 어린 봉사 딸을 데리고 금강산을 찾아가 투신 自殺하는 것은 非基督教的이다. 죽음으로 贖罪한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진정한 悔改라면 거듭나는 새로운 삶이 이어져야 할 것이요 참다운 救援의 의미를 체득하도록 했어야 할 일이다. 이에 비하여 사랑을 잃고 牢獄에 급급하던 봉구가 主人 殺害의 혐의를 뒤집어 쓰고서도 이를 감수하고, 黑白이 가려져서 出監된 뒤에도 모든 것을 버리고 民族을 위해 農村運動에 투신하도록 한 것은 不自然스럽다. 이는 春園의 民族主義와 啓蒙意識이 接合된 作爲的인 展開로서 「無情」의 結末과 마찬가지로 하겠다. 뿐만 아니라 봉구가 殺人者를 알면서도 목비권을 행사하여 殺人혐의를 뒤집어 쓰고 死刑宣告를 받는것이 基督教的인 용서요 사랑이나 할 때, 그게 아니라는 점이다. 義를 사모하는 것도 아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순영이를 잃은 자포자기의 心理라 할 수 있어, 基督教 모랄과 거리가 있다. 그리고 이 作品에는 信仰에 철저한 P夫人이라든지 人순이등이 출현하여 기독교적 셋팅을 이루고 있지만, 그들이 지나치게 教條主義, 改理 관능에

29) 白鐵, “基督教과 韓國의 現代小說” 「韓國現代小說研究」(民衆書館) p. 87.

30) 尹弘老, 「韓國近代小說研究」(一潮閣) p. 81.

<韓國 現代小說에 나타난 基督教思想>

빠져서 순영이의 목숨을 구하는 일에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고 있음은 非人間的이다. 이와같이 이 作品은 여러가지 問題點을 지니고 있지만, 主人公들이 모두 예수敎人으로서 善惡의 갈등과 靈肉의 혼돈, 罪를 짓고 悔改하는 主題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基督教文學을 이룬다.

李光洙는 그뒤 「愛慾의 彼岸」(1936)을 통해서 罪와 悔改의 문제를 主題化하였다. 女主人公 혜련은 病牀에서 신음하면서도 아버지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어머니와 長老의 신분으로 女色에 빠져 위선적인 生活을 하는 아버지와의 不和 속에서 幻滅을 느끼고, 愛慾을 초극하여 求道의인 삶을 찾아가는 淸純한 처녀다. 그녀도 때로는 異性을 그리워하고 또 그녀를 사모하는 男子들도 있지만, 그녀는 男女의 性愛를 싫어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하늘나라만을 바라고 산다. 그녀는 人間의 罪에 대하여 苦惱하고 오빠의 방탕, 아버지의 딸 친구까지 범하는 性的인 타락을 救濟하기 위하여 코친의 무덤 앞에서 자살하기에 이른다. 오빠와 金長老는 혜련의 죽음을 보고 서야 비로소 罪를 자복하고 悔改의 눈물을 흘린다. 혜련은 아버지의 罪를 贖罪하기 위하여 苦숨을 바쳤으므로 그녀는 崇高한 代贖物인 셈이다. 평소에 예수의 사랑의 生活, 眞理의 生活을 사모하던 그녀는 참 사랑을 실천하려고 귀한 生命을 내던져 贖罪羊이 된 것이다. 혜련의 自殺이 人間生命을 귀히 여기라는 基督教의 敎理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는 「再生」에서 순영이가 自殺한 경우와는 달리 풀이해야 할 줄로 안다. 아롱든 이 作品은 罪와 救援의 문제를 主題化한 基督教小說로서 주목할만 하다고 하겠다.

한편 李光洙는 「有情」(1933)이나 「사랑」(1938)을 통하여 自己 희생적인 사랑을 그리서 宗教的 人生觀을 구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有情」의 崔皙이나 南貞妊의 사랑은 個人的인 次元에 머물러 있고, 「사랑」의 安賓이나 石筍玉의 사랑도 플라톤·라브에 치우쳐 있어, 基督教의인 人類愛나 휴머니즘에 끼치지 못하고 있다. 男女가 肉體的인 性愛를 떠나 精神的으로 尊敬하고 崇拜한다고 해서 이를 基督教의인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崔皙과 安賓이 벗이는 克己와 脫俗의 姿勢라든지 苦惱를 이겨내는 靈的인 싸움, 超異性的인 순결한 사랑등은 宗教的인 人間像을 부각시키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리고 “「有情」은 「사랑」의 母體인 동시에 原型”³¹⁾이라고 말한 본도 있거니와, 이 두 作品이 흡사한 作品 모티브를 지니고는 있지만, 前者가 거 어둡고 은둔적인 苦行의 삶을 그렸음에 비하여 後者는 보다 건강하고 自己희생적인 삶을 그리고 있어서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李光洙는 몇편의 作品을 통하여 基督教와의 接觸을 시도하였는데, 그것은 대개 正統的인 敎理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 罪와 救援의 문제라든지 靈肉의 갈등과 悔改의 문제, 宗教的인 人間像의 구현등을 나타내고 있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李光洙文學의 宗教意識는 더 많이 道德性 문제에 치우쳐 있고, 當時 예수敎人의 위선적 生活을 비판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31) 鄭飛石, “解說”『李光洙全集』8 (三中堂) p. 523.

李光洙 이후에도 韓國小說은 간혹 基督教의 關聯을 맺어 왔으나, 미흡한 점이 많다. 金東仁은 단편 「明文」(1925)에서 基督教에 대한 노골적인 冷笑와 批判을 시도했고, 廉想涉은 「三代」(1932)에서 政治的 不滿 때문에 教會에 둘러든 主人公들이 한결같이 非宗教的, 위선적인 生活를 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田榮澤은 基督教의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창작에 임했고, 金東리는 「巫女圖」(1936) 등에서 保守的이고 他界的인 信仰을 그렸으며, 朴榮濬도 여러 作品에서 基督教의인 素材를 다루었다. 이에 비하여 朴啓周는 「殉愛譜」(1939)에서 이웃을 위하여 自己를 희생시키는 基督教의 主題를 구현시키고 있다. 눈이 멀고 殺人犯으로 處刑될 처지에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용서하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문선이라든지, 스스로의 나락을 뒤우치고 水災民 구호에 투신하여 남을 살리고 자기는 죽는 철진이를 통하여 基督教의인 사랑의 實證을 보게 된다. 이 作品에는 惡에 대하여 善으로 갚고 원수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基督教 精神이 구현되어 있다. 善惡의 갈등과 良心의 苦惱, 罪에 대한 悔改와 自己희생의 모습등 基督教의인 主題가 잘 나타난다. 특히 自己를 저버리고 친구와 놀아나는 원수인 철진에게 제 피를 주어 수혈하는 혜선의 마음이라든지, 뒤에야 罪를 깨닫고 이웃을 위해서 自己를 희생하는 철진의 心理變化가 아주 잘 그려져 있다. 作家는 영호의 입을 빌어서 “가장 높고 가장 깨끗한 사랑에 자기를 제공하여, 남을 위해서 사랑의 제물이 되는 문선이나 영희나 철진이나 혜선이나 황인수는 다 같이 사랑에 殉하는 殉愛의 使徒들이요, 十字架의 使者들”³²⁾이라고 논평하면서 作品을 끝낸다. 다만 이 作品도 李光洙의 경우처럼 너무 읽기 쉽게 써어졌기 때문에 藝術性이 뛰어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끝으로 黃順元의 作品은 특별히 基督教의인 色彩를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基督教의 휴머니즘의 세계를 作品 깊숙히 具現하고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끈다. 解放後 西北地方의 共產化와 土地改革의 非人間的인 과정을 그린 「카인의 後裔」는 神 없는 휴머니티의 세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主人公 박훈을 통한 人間性의 응호와 오각녀의 현실적인 사랑이 基督教精神과 無關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³³⁾ 人間이 社會의 變革이나 時代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키고 良心을 지켜 간다는 것은 값싼 일이다. 黃順元은 「人間接木」에서 孤兒院을 무대로 甞의 世界와 싸우는 한 人間의 외로운 삶의 姿勞를 보여 준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편에 서지 않고 적대시하지만, 그가 꾸준히 사랑을 가지고 대할 때 善良한 人間性이 서서히 回復되어 감을 啓示한다. 黃順元은 近來 作品인 「움직이는 城」에서 罪責으로 인한 人間의 苦惱와 救援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존경하던 敎師天人과 不倫의 관계를 가졌던 젊은 敎役者가 贖罪하기 위하여 겪는 心理的 苦惱라든지, 疎外된 板子村에 뛰어 들어가 그들과 함께 苦痛을 나누는 모습에서 基督教精神을 실감하게 된다. 同時 展開法을 써서 小說美學을 확대하기도 한 이 作品은 그 題目이 가리키

32) 朴啓周, 「殉愛譜」(民衆書館) p. 309.

33) 拙稿, “黃順元의 生命主義文學” 『韓國言語文學』 4輯 pp. 14~

<韓國 現代小說에 나타난 基督教思想>

듯이 不安과 焦燥와 危機感 속에서 精神的으로 彷徨하는 人間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요컨대 黃順元의 作品들은 人間的인 苦惱와 救援에 대한 希求등을 그리고 있어, 作品 속에 기독교적인 宗教意識을 含蓄하고 있다.

그 밖에 解放後의 現代小說에 이르면 많은 作家들이 基督教意識을 가지고 作品創作에 임하고 있어 基督教文學은 더 좀 蓬성해진다. 林玉仁의 「越南前後」 李鍾桓의 「使徒行傳」 李範宣의 「誤發彈」 金聲翰의 「바비도」 鄭乙炳의 「城」 吳昇在의 「第一教會」 金義貞의 「목소리」 白道基의 「靑銅의 뱀」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主題의 基督教小說이 나오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해 둘 것은, 基督教文學은 그 素材나 背景이 基督敎的이라 해서 특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基督教思想과 精神이 그 속에 구현되어 있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의 藝術作品으로 구상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Ⅲ. 結 論 — 基督教文學의 展望

以上으로써 文學과 宗教思想과의 關係를 살피고 韓國現代小說에 나타난 基督教思想의 양상을 考察하였다. 韓國에 基督教가 傳來된지도 가톨릭은 200년, 改新敎는 100년의 歷史를 가지고 있어 宣敎면에 있어서는 크게 성공하고 있지만, 文學과의 接觸은 量的으로도 미약하고 質의으로도 미흡하였다. 특히 基督教思想을 受容한 韓國小說은 開化期에 白岳春史의 「多情多恨」(1907)이라든지 安函善의 「禽獸會議錄」(1908) 李海朝의 「自由鍾」(1910) 등에서 그 萌芽를 갈 수 있으나 극히 미흡하고, 본격적인 作品은 李光洙의 近代小說에서 찾게 된다. 李光洙는 「再生」(1924)과 「愛慾의 彼岸」(1936)에서 罪와 悔改의 문제를 다루었고, 「有情」(1933)과 「사랑」(1938)에서는 克己의이고 自己희생적이고 精神的인 사랑을 그림으로써 宗教의 人間像을 구현하였다. 그러나 많은 論者가 지적한 것처럼 그의 宗教意識은 基督教보다 佛敎에 가깝고, 또 그의 基督教에 대한 理解는 다분히 편협하다. 金東仁은 「明文」(1925)과 「信仰으로」(1930)에서 基督教에 對한 冷嘲와 批判을 시도했고, 廉想涉은 「三代」(1932)에서 예수敎人들의 道德的 타락을 리얼하게 묘사하였다. 金東里는 「巫女圖」(1936)와 「사반의 十字架」(1955)에서 來世의이고 他界의인 基督教의 모습을 그렸을 뿐이고, 朴啓周는 「殉愛譜」(1939)를 통하여 罪와 悔改, 自己희생적인 사랑의 實踐 등 숭고한 기독교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좋은 기독교 소설을 보여 주었다. 다만 春園小說의 경우처럼 읽기 쉽게 썼기 때문에 對話가 남발하고 藝術性이 미흡한 것이 흠이다. 黃順元은 「카인의 後裔」 「人間接木」 「움직이는 城」 등을 통하여 基督教思想을 內包 溶解시키는 藝術的인 作品을 성공시키고 있어, 基督教文學의 方向을 例示한다.

이제 韓國小說에 나타난 基督教思想을 反省하면서 앞으로의 發展을 展望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事項을 제기코자 한다.³⁴⁾

1) 基督教文學은 言語藝術로서의 文學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 문학이란 基督教思想의 藝術的인 形象化인 만큼, 想像力과 言語美學을 동원하여 하나의 藝術作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基督教文學은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요 기독교 사상의 표현이어야 한다. 단순한 기독교적 素材를 등장시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善惡의 對決, 靈肉의 갈등, 良心의 苦惱, 信仰과 救援에 대한 追求, 罪와 悔改, 神에 대한 탐구, 사랑과 正義의 실현, 所望과 夢, 自己의 희생과 이웃에 대한 奉仕, 人間性의 옹호와 回復등 휴머니즘이 나타나야 한다.

3) 基督教文學의 表現方法은 直接的인 경우와 間接的인 경우, 그리고 批判的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前者는 既成敎理의 옹호와 信仰의 干證이요, 다음은 含蓄的인 것으로서 基督教思想을 溶解시켜 나타내는 경우이다. 끝의 것은 基督教의 矛盾과 非理를 諷刺 批判하는 경우로서 모두 特色을 가진다. 그러나 가장 重要視할 것은 藝術作品 속에 자연스럽게 基督教精神을 구현시키는 方法이다.

4) 基督教文學은 宗教意識의 生活化와 體驗的인 土着化가 先行되어야 한다. 具體的인 生活을 통하여 기독교적인 情緒가 다듬어지고 思想이 익어가고 信念이 意志化될 때, 비로소 기독교 문학은 형성된다. 따라서 기독교 문학은 기독교적 生活體驗과 文學的 訓練이 접려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基督教文學은 存在의 文學이 아니라 當爲의 文學, 快樂의 文學이 아니라 敎訓의 文學 慰安의 文學이 아니라 救濟의 文學, 消費의 文學이 아니라 創造의 文學, 遊閑의 文學이 아니라 苦惱의 文學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基督教文學도 人間의 價値를 옹호하는 휴머니즘文學이 되고, 産業化와 組織社會 속에서 疎外되고 喪失된 人間의 尊嚴性을 回復하는 人間化의 文學이 되며, 바람직한 生의 姿勢를 제시하는 모랄의 文學이 되고, 社會的 不條理와 物質萬能의 병폐와 機械技術의 挑戰에 대응하는 抵抗文學의 일을 담당하고, 人間存在의 새로운 意味를 追究하는 內面探究의 文學이 되며, 讀者들을 精神的으로 일깨워 주는 새로운 啓蒙文學, 開眼의 文學이 되어야 하겠다.

34) 拙稿, “韓國文學의 基督教思想研究” 『韓國言語文學』15輯, 再論.